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3호 HYUNBULNEWS.COM 2025년 3월 19일(음력 2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올해는 봄부터 가을까지 '선명상 향연' 펼쳐진다

조계종, 4월 1~6일 '2025 국제선명상대회'

서울 강남 봉은사 일원서 진행
4월 1일 개막…프로그램 다채
초급~전문 108가지 명상 소개
5~9월 전국서 선명상대회 추진
진우스님 "선명상으로 행복 전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는 '2025 국제선명상대회'가 4월 1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올해는 4월 3~6일 봉은사 인근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봉은사는 4월 2~6일, 경내를 선명상 체험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사기간 동안 봉은사 미륵광장에서는 선명상음악회(음악명상)를 비롯해 젊은이들의 연애 고민 토크쇼 명상, 진로 고민 토크쇼 명상 등 다채로운 선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봉은사 내 각 전각과 마당에서는 초급자부터 전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7가지 선명상 총 108가지가 운영된다. 캉쎄르 린포체 외 12명의 세계 각국 스님의 명상 지도와 국내 명상 지도스님, 명상과학 지도자, 템플스테이 지도자 및 국내 유명 명상(요가) 지도자와 강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5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은 4월 1일 오후 6시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봉행된다. 개막식에서는 미륵대불을 활용한 '세계평화' 기원 미디어아트가 진행되며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과 국내외 유명 명상가가 함께하는 선명상 음악회도 열린다. 불교의 정신과 전통을 담아 불교 의식도구인 사물(범종·목어·운판·법고), 국악과 서양의 관현악단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대표 프로그램은 선명상위원장 금강스님이 진두지휘한다. 화두와 서원을 '선명상 목걸이'에 직접 지니며 화두를 통해 지금 내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 늘 깨어있게 하고,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한 서원을 세우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과 평안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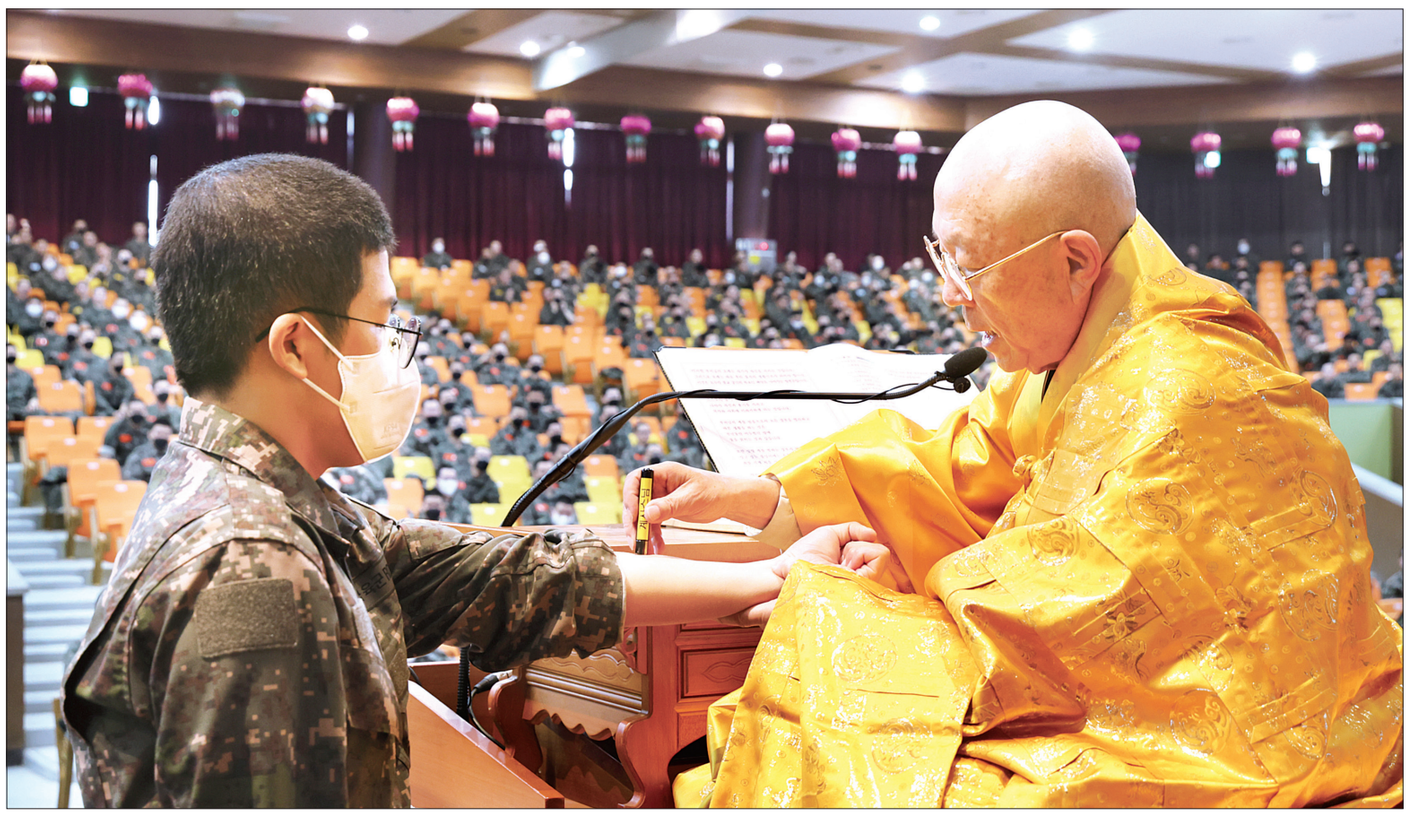
국제선명상축제 이후인 5월부터 9월까지는 인천과 경기, 강원,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제주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 '지역 국제선명상대회'가 열린다. 10월에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명상과 교육'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여법하게 회향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단순한 수행을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국민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온과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선명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선명상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025 국제선명상대회'가 서울을 세계적인 명상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의 씨앗을 심어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선명상이 보편화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미래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화문에서 진행된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약 3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하루 5분 선명상'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올해는 누구나 쉽게 하루 5분 선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명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 분야에 접목하여 확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명상의 대중화와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5 국제선명상대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온라인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4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2025 국제선명상축제'의 선명상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2-737-0863



호국불교 정신 계승한 군불자 되겠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3월 8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2025군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훈련병 1700여 명이 참석해 오계를 수지하며 불자로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지계정신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참된 군인이 될 것을 강조했다. 사진은 자광 대종사가 훈련병에게 연비를 하는 모습. 논산=유재상 충청지사장

더프라미스, 불교계 첫 서울형 키즈카페 개관

3월 6일, 답십리1동점 개관식
"어린이 포교의 윤활유" 기대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불교계 단체 처음으로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 운영한다. 이웃종교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키즈카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불교계도 이를 활용한다면 어린이 포교의 윤활유가 될 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더프라미스는 3월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개관식'을 개최했다. 더프라미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을 수탁 운영하기 시작했다. 운영기간은 5년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은 연면적 126.5㎡(약 38.3평) 규모다. 미끄럼틀, 시장놀이, 주방놀이 등 유아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프라미스는 강원도 산불 및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난 현장에서 어린이 돌봄쉼터를 운영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고,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힘써왔다. 또 안전 지키링 캠페인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더프라미스는 3월 6일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개관식'을 개최했다.

더프라미스는 이러한 어린이 돌봄을 경험을 바탕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하며 아동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불교계 단체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활동의 영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2023년, 민간시설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나 불교계의 지원 미비로 선정이 되지 않은 바 있다.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계 참여가 두드러지며 속속 성과를 나타내자 불교계에서도 서울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지난해 서울시 키즈카페 위탁운영을 주제로 '2024 제1차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정책의 흐름과 포교 방향을 읽어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때문에 불교계의 더프라미스의 이번 수탁은 단순한 정책 참여를 넘어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프라미스 이사장 묘장 스님은 "아동보호, 아동돌봄은 더프라미스 창립 이래로 지속해온 핵심 활동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형 키즈카페 답십리1동점이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키즈카페이자 부모님들에게는 쉼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답십리1동점 이용대상은 3세~6세(2019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생) 아동과 보호자다. 회차당 이용료는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 놀이돌봄 서비스는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월요일, 공휴일 제외)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간 3회차로 운영한다. 회차당 이용인원은 아동 기준 개인 14명, 단체 20명이며 이용신청은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 2BL커뮤니티센터 내 지1층에 위치했다.

임은호 기자

육조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생사해탈을 위한 '3년결사안거' 모집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면
반드시 3년 안에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방각서 : 3년결사안거 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의와 불만을 절대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어떠한 벌칙도 감수하겠습니다.



1000명 앞에서 좌탈입망하신
전강 전법 대선사

지금 불교계에 스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선 대원선사는 현재 90의 연세로, 64년 전인 26살 때부터 120세까지 수명을 정해놓고 사시면서, 간절히 깨닫기를 서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죽비를 잡고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3년결사안거'를 단행하고자 하십니다.

농선 대원선사의 법사이신 전강선사는 1000여 명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하신 후, 앉은 자리에서 열반에 드셨고, 은사이신 해인사 인곡선사도 나고 죽음을 자재하셨으며, 농선 대원선사님 지도하에 공부한 제자 소진추, 전대각월 불자님도 좌탈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생에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를 따른다면, 누구라도 승속과 종파를 초월해 입방하여 반드시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만 끊어지면 내 부모 처자식은 그만두고 내 몸마저도 한 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나이겠습니까?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지닌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방요건 : 나이 (30~60대 남 · 녀) /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분 / 제출서류 (입방각서, 건강진단서) / 접수기간 2024. 09. 01 ~ 2025. 12. 31 / 문의 010-8670-1445